

본인가 준비중 인터넷은행 사전테스트

금융시장의 새로운 모델인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상공간에서 먼저 테스트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추후 본인가를 받는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본인가를 준비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한국은행(거액결제망), 금융결제원(소액결제망) 등과 전산 사전 연계 및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는 본인가에 앞서 관계 기관과 약 2~4개월 정도 전산 연계 사전테스트를 실시하고 싶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은 금결원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는 본인가

가상공간 '샌드박스' 이용... 전산 사전 연계 등 검증

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사전 테스트를 위해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인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이하 샌드박스)를 이용한다. 샌드박스란 집 뒤뜰에 모래사장이 깔려 있어 어린이가 다치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기존 규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금융상품과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가상 공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 금융위는 현재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세미나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가 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샌드박스를 통해 사전에 시험하기로 했다"며 "소액·거액결제시스템 연계, 예금보험제도 가입 등을 테스트해 신실 은행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를 온라인 방식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카드업 영위 ▲방카슈랑스 영위 ▲모바일 OTP(일회용 비밀번호) 발급 ▲전자문서 방식으로 의환거래 신고 허용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금융제도를 개선 조치했다. ▲온라인 기반 자문서비스 제공 ▲온라

인 방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판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은 올해 중 추가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올해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현장 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실무 지원 태스크포스(TF), 금융위원회 현장컨설팅 등을 운용할 것"이라며 "다음달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내부통제시스템·전산설비 구축 등 인가 관련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를 설치·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한국GM, 중형SUV '쉐보레 캡티바' 출시

한국GM 쉐보레가 중형SUV '2016 쉐보레 캡티바'를 출시한다. 한국GM은 21일 서울 도곡 브라운엔스에서 '2016 쉐보레 캡티바' 신차 발표회를 열고 4월 4일부터 2016 캡티바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16 캡티바는 유로6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새로운 2.1 디젤엔진과 아이시 8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다. 그 결과 최고출력 170마력과 40.8kg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복합연비는 11.8km/l을 달성했다. 안전 사양도 대거 탑재했다. 캡티바는 운전석과 동반석, 사이드 커튼 에어백 등 총 6개의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1열 안전벨트는 듀얼 프리텐서너를 기본 사양으로 채택했다. 이는 차량이 충돌할 때 벨트가 나오는 출구 쪽에서 역으로 벨트를 당겨워 탑승자의 상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준다. 아울러 사각지대 경고시스템과 후측방 경고시스템을 탑재. 레이더 시스템으로 감지된 주변 사물과 차량의 접근을 경고한다. 앞뒤 차량 하중 변화에 따라 차량의 후미가 처지는 것을 방지하는 차고 조정장치 셀프 레벨라이저(Self Levelizer) 시스템을 기본 적용했다. 2016 캡티바는 전 트림에 7인승 좌석을 선택 적용해 실내 거주성과 공간 활용성을 자유롭게 했다. 시트를 손쉽게 접고 펼 수 있는 이지 테크(EZ-Tech)가 적용된 분할 시트 폴딩을 통해 최대 1577l의 여유있는 화물 적재 능력을 보유했다. 2016 캡티바의 가격은 2809만~3294만원이다. /인진수기자

구글, 비영리단체에 자금과 멘토링 지원

구글이 비영리단체들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자금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구글은 비영리단체들을 대상으로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공모하는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는 비영리단체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구글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비영리 또는 비정부 단체다. 공모 참여를 원하면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구글 임팩트 챌린지 웹사이트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글은 오는 7월9일 결승 진출 10개팀을 공개한 후 8월23일 최종 우승 4개팀을 발표한다. 심사위원단이 3개팀, 시민들이 투표로 통해 1개팀을 선정한다. 최종 우승 4개팀에게는 최대 30억원의 자금과 함께 1년간 멘토링을 지원한다. 심사 기준은 ▲지역사회 영향력(지역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기술과 독창성(기술을 활용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가) ▲확장성(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모델인가) ▲실행가능성(현실적인 세부 계획을 갖고 있고 실행을 위해 필요한 단계 및 기구들과 함께 진행하는가) 등 4가지다. /인진수기자

인터넷은행도 투자자문 가능

온라인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의 투자자문 업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SA) 판매가 올해 안에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케이뱅크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준비상황 점검 관련 현장컨설팅에 참석해 "온라인 금융환경 변화에 맞도록 금융규제를 정비해 온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이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 같은 허용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여성전문금융업 인허가자침'이 개정돼 30개 이상의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없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경영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의 경우도 작년 부터 온라인을 통한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실명확인 창구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금융거래 규제도 수십년 만에 변경돼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해졌다"며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일회용비밀번호(OTP) 발급도 가능해져 스마트폰으로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를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해 안에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를 도입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하려고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계획"이라며 "본인가 이전이라도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해 충분히 테스트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관계자들의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조속히 출범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들은 '한국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내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모델, 채용, 승진 교육, 보상 등 여러 분야에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모범사례를 만들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나이가 국내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지자체 해외카드사용액 증가세 '주춤'

씨보고 구매하자

LG전자가 출시를 앞둔 최신 스마트폰 LG G5의 사전 체험 행사를 시작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KT 직원들이 세계 최초 모듈방식의 LG G5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해외에서 끊은 카드 사용액이 13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카드 사용 증가 속도가 예년에 비해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 가격이 환율과 함께 오르면서 해외 직구 등이 줄어들면서 지난 6년 이후 가장 느린 증가세를 보였다.

21일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이용 금액은 13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 8.7%를 기록,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느리게 늘어났다. 이 기간 출국자 증가율은 20.1%로 높은 편이었지만, 원·달러 환율이 7.4% 오르면서 해외 구매 등이 감소했다. /인진수기자

또 5년간 연평균 56.4% 늘어나면서 해외 카드 이용 규모 증가를 이끌던 해외 직구 금액도 소비자 불만과 가격 상승 등으로 1.5% 감소했다. 지난해 해외 카드 이용 1건당 평균 결제 금액은 96달러(11만원 상당)로 전년 대비 11달러 하락했다. 신용카드 해외 이용 규모는 94억7000달러로 전년 대비 8.5% 직불형 카드 이용은 9.2% 증가한 38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 별 결제 금액은 ▲숙박시설 283 달러 ▲항공사 249 달러 ▲남·여성복 193 달러 ▲여행사·열차표 구매 182 달러 ▲가족의류 166 달러 등이었다. /인진수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